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 한광대학교병원 5층 50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9년 1월 3일 목요일 (음 11월 28일) 제2203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더 잘사는 안전한 대한민국... 기해년 신년회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 기해년 신년회를 마친 후 시도지사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유치원 문제, '공립 확대'가 정답

정부 약속 병설유치원 1~2학급 늘리는 것에 불과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 의결 내년 총선 시행 '암초'

"공립유치원 증설만이 해결책이다." 최근 유치원 3법 문제로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의 통 큰 결정이 요구된다. 이미 프랑스 등 일부 선진국들은 유치원 공교육화가 이뤄지고 있다. 정부도 공립유치원을 두배 더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는 병설유치원 1~2학급 늘리는 것에 불과하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비리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뒤 유치원도 회계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졌다. 현재 사립유치원 재무회계는 정부보조금과 정부지원금, 학부모부담금으로 수입재원을 마련하고 있지만 지출항목 구분이 미흡해 투명한 수입과 지출확인이 어려운 구조다. 이로 인해 일부 사립유치원들은 생

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맞벌이 부부들은 오후 7시까지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사립유치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공립유치원은 오후 1~2시만 대부분 문을 닫는다. 일부 공립유치원에서는 5시까지 돌봄교실을 운영한다해도 직장을 다니는 학부모들은 7시 퇴근이기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사립유치원을 선호하고 있다. 정부 정책과 현실사이에서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이다. 더이상 아이들을 불모로 협상은 안된다. 장기적으로 유치원 공교육을 현실화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갈등만 조장하는 유치원 3법 국회 통과만이 진정한 답이다.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유치원 3법'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산되면서 신속처리 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지만, 법안 시행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330일이 지나야 본회의 의결을 거칠 수 있을 뿐 아니라 1년 후 국회의원 선거 시기와 맞물리면서 관심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의결했다. 2016년 12월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회적참사특별법' 이후 두 번째다. 패스트트랙은 재적위원 과반이 서명한 신속처리 대상 지정요구 동의서를 소관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투표 요건이 성립된다. 교육위 재적위원 14명 중 민주당 의원 7명과 바른미래당 의원 2명을 합쳐 지정 요건인 5분의 3 이상의 표도 충족했다. 하지만 2020년 국회의원 선거가 시행되는 것도 '암초'로 꼽힌다. 330일이 지나면 21대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하느라 관심 밖으로 밀릴 수 있기 때문

이다. 또 총선 국면에 접어들면 한 표라도 아쉬운 의원들이 이번 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영향력을 과시한 사립유치원의 눈치를 볼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 교육위 의원은 "의정들이 공원을 받기 위해 지역 활동에 매진할 시기가 유치원 3법 처리에 얼마나 관심을 둘지 의문"이라며 "사립유치원 원장이 학부모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면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통과를 예단하기는 힘들다"고 했다. 다만 유치원 3법의 조속한 시행을 요구하는 여론의 압박에 못 이겨 여야가 법안 처리 논의에 속도를 낼 경우 본회의 의결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편 도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전주 관내에서는 병설유치원 1곳이 설립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당국의 보여주기식 행정보다는 실질적으로 공립유치원을 늘려야 한다. 유치원 원아들을 둔 부모 입장에서 현실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장은성 기자

중기 육성기금 저금리 지원

도, 전북은행 고통분담 동참 시설자금 기업부담금리 0.4% 인하

전북도는 도내 중소기업들의 창업 촉진 및 시설투자 확대를 위해 기금관리은행(전북은행)과의 금리협약 조정 체결을 완료하고, 2019년부터 시설자금의 기업부담금리를 전년보다 0.4% 인하하여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은 2.0%⇒1.6%, 벤처기업육성자금은 1.0%⇒0.6%의 초저금리로 지원한다. 시설자금 기업부담금리 0.4% 인하는 최근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 등 전북지역 중소기업들의 어려운 기업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추진된 사항으로, 기금관리은행인 전북은행이 고통분담에 적극 동참해 0.4%의 기업부담금리 인가가 결정되었으며 최근 0.25%의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등을 고려하면 기업들에게는 최대 0.65% 상당의 대출이자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기업부담금리 인하는 신규로 융자받은 업체를 포함해 기존에 도자금을 지원받아 상환중인 시설자금(520여개사, 약2,000억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함에 따라 기존에 도자금을 융자받은 업체들에게도 이자 감면 혜택이 즉시 적용된다. 전북도는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들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 및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2019년도에 1,9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정책자금을 저금리로 집중 지원한다. 이는 국내·외 경기침체와 자금수

요의 어려움을 반영해 적기에 자금을 지원하여 창업활성화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들의 대출이자 부담을 경감시켜 경영으로 해소 및 기업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 사항으로, 2019년 전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자금별 지원규모는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800억원, 경영안정자금 850억원, 벤처기업육성자금 150억원이며,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 등 GM·조선업 협력업체들의 어려운 기업운영 상황을 고려해 GM·조선업 협력업체 긴급경영안정자금은 100억원을 별도 배정했다. 아울러, 벤처기업육성자금 지원규모를 전년 대비 50억원을 증액하여 수도권 대비 열악한 도내 벤처기업 및 4차 산업혁명 관련기업들의 창업촉진 및 시설투자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은 업체당 최대 13억원(지역산업기업 16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융자기간은 3년(거치 5년)상환, 도 이차보전 2.18%, 기업부담금리 1.6%의 저금리로 지원된다. 경영안정자금은 일반기업 업체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융자기간은 최대 2년(거치 2년)상환, 도 이차보전 2%를 지원한다. 벤처기업육성자금은 업체당 최대 10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융자기간은 최대 3년(거치 5년)상환, 도 이차보전 3.18%, 기업부담금리 0.6%의 저금리로 지원된다. /김진성 기자

전주시, 드론 제조업·유통산업 육성 본격화

세계 최초로 드론축구를 개발한 전주시가 2019년 새해 드론 제조업과 유통산업 육성을 본격화한다. 시는 대한민국 드론산업을 이끌어가는 차세대 드론 메가시티 인프라를 구축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내고 오는 2025년 전주 드론월드컵 개최를 위한 기반을 다진다는 전략이다. 먼저, 시는 올해 드론 스타트업(Startup)과 창업 활성화, 관련기업 육성 등 드론산업 혁신성장 지역거점 구축을 위한 사전 기획연구로 '드론기업지원허브 구축 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송호철 기자

시는 향후 드론기업지원허브 사무실과 공용실험실, 드론실내 실험장 등 창업공간과 테스트장비를 구축하고, 드론 스타트업과 창업기업의 시제품 제작과 상용화 지원, 해외 마케팅 및 판로개척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세무·법률·특허·마케팅 등 컨설팅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드론·3D프린팅·ICT 등 전주 신성장전략산업의 이슈선점과 국제교류를 통한 해외 판로개척을 위해 올 상반기 중 드론산업 국제박람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송호철 기자



謹賀新年
희망으로 속아오른다

선유도 일출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

변화와 혁신 그리고 희망의 시작

시민의 손과 손이 모여 새로운 변화를 일구는 군산을 만들겠습니다.

시민이 만드는 자치, 모두가 잘사는 경제, 문화가 흐르는 관광, 골고루 누리는 행복, 더불어 쾌적한 안전 도시를 조성하여 살맛나는 군산을 함께 만들겠습니다.



군산시 GUNSAN CITY